“민주주의 향한 함성, 젊음 바쳐 외치다”

70년대 민주화운동 사랑방 ‘봉심정’

〈11〉이강

전봉준 백산성지 답사 후 깊은 울림에 민주화 길로 들어서

함성지·민청학련 등 앞장…“남구 봉심정, 민주 전진 아지트”

이강(75)씨는 함성지 사건과 민청학련을 이끌었던 주요 민주인사로 광주권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다.

“(동학농민운동)그 어려운 시절도 죽창을 들고 해냈는데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의 (민주)함성을 외쳐보자!.”

1947년 해남출생인 이강(75)씨는 함성지 사건과 민청학련을 이끌었던 주요 민주인사로 광주권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다.

그의 본격적인 민주화운동은 군을 제대한 후 시작됐다.

전남대 법대 69학번인 이씨는 복학 후 유신체제로 인한 무기휴교령에 따라 학교를 다닐 수 없자 김남주와 단둘이 근대역사 공부를 위해 전봉준의 유적지 답사에 나섰다.

이씨와 김남주는 중학교 동창 사이로 매일 붙어다니는 죽마고우 사이였다.

전봉준의 자택을 방문했던 이씨는 자택 옆에 사는 할머니의 “전봉준은 참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말에 깊은 울림을 느꼈다. 또한 ‘앉으면 죽산(죽창만보이고) 서면 백산(흰옷만 보여)’이라는 의미를 되새기고자 찾은 백산성지에서 전봉준의 투지와 지략을 볼 수 있었고, 주변 평야 한가운데 솟아있는 그 기개는 근대 역사의 현장으로 이씨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했다.

백산성지는 1894년 제1차 동학농민운동의 봉기군이 집결해 전주 방면으로 진격했던 곳으로 수로와 육로를 통해 진군을 시작했던 역사적인 장소다.

‘어디서든 혁명의 횃불을 볼 수 있다’는 백산성지에 앉아 둘은 ‘민주화 투쟁의 길’로 들어설 것을 굳게 다짐했다.

이씨는 “그 어려운 시절에도 해냈는데 지금에 와서 무엇이 두려울까소냐”라면서 돌아오자마자 김남주와 함께 함성지를 만들었다.

함성지는 전국 최초로 반유신체제에 항거한 운동으로 기록돼 있다.

이씨와 김남주는 등사판, 줄판, 등사기를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구매했다. 그 때는 감시가 삼엄해 무엇을 하든 조심스러운 시절이었다.

필력을 감추고자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던 친동생 이황에게 글을 쓰게 했다.

프린트한 500여장의 함성지는 이불에 쌓아 벽장에 넣고 그들은 때를 기다렸다.

1972년 개학 하루전인 12월9일 저녁 이씨와 김남주는 전남대의 농대, 법대, 상대, 문리대를 돌면서 유인물을 뿌렸다.

또한 광주고등학교 교실내부와 전남여고, 광주여고, 광주공고 등 담벼락 밖에서 운동장으로 던져가면서 저녁내내 유인물을 돌렸다.

광주일고는 당시 독립운동의 맥이자 기지로 의미가 깊은 장소였고 이둘은 가장 많은 70-80장의 유인물을 그곳에 던졌다. 밤 12시 통행금지로 인해 미쳐 뿌리지 못한 100여장의 유인물은 돌아와 집에 숨겼다.

유인물을 뿌린 다음날 중앙정보부는 범인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됐고, 전대 법대강사로 내정됐던 박석무를 학생처장실로 불러 필력을 바탕으로 주모자를 찾으라고 강요했다.

하지만 그는 이강과 김남주를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정보부는 함성지 작성이 의심되는 영문과와 법대 전체인원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결국 그들은 유유히 빠져나갈 수 있었다.

이후 신학기가 시작되고 1973년 4월 이강은 ‘고발’이라는 새 유인물을 작성했다.

유인물은 마찬가지로 동생 이황이 필사했고, 이불 속에 숨겨 100여장 남았던 함성지와 고발지를 당시 서울에 거주하던 김남주에게 소포로 붙였다.

며칠 후 등교하려던 이강은 ‘담뱃불 좀 빌립시다’라는 말을 거는 3명의 일행에게 순간적으로 납치됐고, 곧장 유인물이 담긴 소포를 적재한 화물선으로 끌려갔다.

그리고 그대로 붙잡혀 모진 고초를 겪어야 했다.

구도청 지하실로 끌려간 그는 붙잡힌 김정길, 박석무, 이황 등과 만났지만 서로 심한 구타를 당해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소회했다.

당시 함성지 사건은 전국의 뜨거운 관심사였다. 재판은 매주 열렸고, 검사와 운동권자들 사이 설전을 통한 민주 토론과 교육의 장이 이어졌다.

이 재판에는 함석헌, 천관우 등 1세대 민주투사들이 다수 참여했고, 방청객들은 박수를 치면서 경청했다.

법정에서 검사는 4·19혁명의 대표시인인 김수영의 “혁명은 안되고 방만 바뀌었다”는 글을 방에 붙였단 이유로 이씨를 혁명사상을 가진 빨갱이로 지목했다.

이에 이씨는 “검사님은 외국에서 재판하려고 비행기 타고 어제 오셨습니까?”라면서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아는 시를 제가 인용하면 죄가 됩니까. 그렇다면 출판사도 빨갱이입니까!”라고 답변했고, 방청석은 웃음바다가 됐다.

검사는 이후 말을 잇지 못했고, 검사와 법정에 앉은 운동권자들의 설전은 끊임없이 오갔다.

이후 그는 1년10개월만에 출소할 수 있었다. 나오는 길에는 전남대스쿨버스가 대기했다. 이때 무료변호를 자청했던 홍남순, 윤철하 변호사 등이 함께 했다.

이후 봉심정을 수시로 드나들며 그는 민주화운동을 이어갔다. 1974년 민청학련으로 다시 잡혀간 그는 1975년 2월15일 출소 후 민주화를 위해 똘똘뭉친 봉심정의 주요 민주열사인 이씨와 김정길, 윤강옥, 이학영 4인은 한날에 죽고 산다는 ‘四一死’ 맹세를 담아 결의형제를 맺었다.

이들은 봉심정에서 매일 밤을 새고 토론을 이어가며 후배를 양성하고, 젊음을 다 바쳐 민주화를 위해 헌신했다.

이씨는 ‘광주 남구는 사실상 민주화의 주무대’였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했다.

이씨는 “운동권이 합법이 아니던 시절 박세정, 김남주, 이학영, 윤강옥 등 수많은 민주투사들은 봉심정에서 모였다”면서 “민주화운동 전진 아지트로써 그 의미는 매우 크고, 봉심정은 반드시 복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복기자

“만5세 취학 철회”…광주 방문한 교육부 장관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방침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3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방문한 광주 서석고등학교 앞에서 전교조 회원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왼쪽). 이날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기숙사 안전점검 등의 논의를 위해 회의실로 입장하고 있다. /김애리 기자

‘여중생 집단폭행’ 영상 가해자 4명 입건

험담했단 이유로 얼굴·복부 가격…SNS서 조롱도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된 ‘여중생 집단폭행’ 영상 속 가해자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3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폭행 혐의로 여중생 4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오후 5시50분께 광주 서구 한 건물 옥상에서 둘러싼 한 학생의 얼굴과 복부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이 자신들의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불러내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2일 피해자와 가해자, 목격자(참고인) 조사를 통해 피해자를 제외한 영상 속 모두에게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당초 SNS에 게시됐던 영상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이는 1명이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총 3명이 피해 학생을 때렸고, 나머지 1명은 이를 방관한 것으로 확인돼 이들 모두 폭행 혐의를 받게 됐다.

또 폭행 영상을 가해자가 SNS에 직접 게시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영상에 담긴 폭행 장면 외에도 추가 폭행이 이뤄지진 않았는지 등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폭행 현장에 가해자와 피해자 외에도 범행을 신고한 목격자 등 총 10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수사 결과에 따라 입건자와 적용 혐의가 달라질 수 있다.

앞서 지난달 27일 SNS에 한 여학생이 또래로 추정되는 무리에게 집단폭행 당하는 영상이 게재됐다.

건물 옥상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약 43초짜리 영상에는 10대로 추정되는 여학생들이 한 학생을 둘러싸고 주먹으로 얼굴과 복부 등을 수차례 때리는 모습이 담겼다.

한 학생은 피해자의 뺨을 때리며 “아프냐”고 물었고, 다른 학생은 비속어와 함께 “예쁘게 찍어”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현재 해당 영상을 담은 SNS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다. 그러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원본 일부가 퍼져나가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안재영기자

스쿨존서 급우회전, 길건너던 7살 친 20대 집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우회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아이를 다치게 한 20대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혜선 부장판사)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19일 낮 12시41분께 광주 북구 양산동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몰던 승용차를 우회전하다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7)군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군은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A씨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 주의 의무를 저버린 채 우회전한 과실로 B군에게 상당한 상해를 입게 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오복기자

목포서 주차된 SM3 전기차 전소

3일 0시 목포시 상동 한 주민센터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SM3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장비 11대와 대원 26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3시간49분 만에 완전히 진화했다. 이 불로 차량이 전소돼 소방서 추산 3천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당국은 현장 조사를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목포=정해선기자